



문화교류인턴십프로그램 수료식

문화교류인턴십프로그램(CCIP) 수료식이 지난 10일 퀸즈 플라싱의 시티필드 구장에서 성대히 열렸다.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과 중국 등 9개국에서 지원한 71명의 학생들이 정치인과 주정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았다.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피터 구 뉴욕시의원 등이 학생들과 함께 자리했다.

〈사진제공=FUSIA〉